

The Mission Newsletter from Myanmar

March 2013 미얀마 김진명 선교사 No. 6

復活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얼마 전 지인 목사님 부부가 미얀마에 다녀가셨습니다. 빈민가 지역인 '달라' 지역을 방문하시고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볼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소망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마저 없음이 저의 가슴을 더 크게 아프게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순절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복음이 속히 저들 가운데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은혜가 이곳에도 가득 흘러가길 기도하며 이곳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의 동역으로 함께 서 계시는 동역자님들께 문안인사 드립니다.

은혜로다...

저는 지난주에 양곤 외국어 대학교에서 치르는 기말고사를 끝으로 이번 학기의 언어연수와 선교사로서의 일년 동안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교단 연회 참석차 3월 27일자로 한국에 들어갑니다. 그 동안의 시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미얀마 땅을 밟은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일년이란 시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언어도 사역도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모습도 모두 부족한 모습들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주의 일을 맡겨 주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한 학기 동안 학교를 다니며 알게 된 한국어과 학생들 3명(원지영, 김지혜, 이은주-한국어 이름을 지어 줌)과 함께 매주 목요일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원선교에 대한 꿈도 서서히 키워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내던 일년 동안 가장 강하게 느낀 것은 미얀마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많은 영적인 변화와 미얀마를 향한 기도들이 미얀마를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사단도 크게 역사해 오히려 예전보다 마을에 진입하는 일들이 힘들어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라 확신하며 오늘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시역...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2013년 미얀마 감리교단 연회가 있었습니다. 새로이 안수 받는 이들과 다음 과정을 진급하는 사역자들 그리고, 각 지방회의 일년 동안의 사역보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년 동안 교단을 이모저모로 도왔던 선교사들에게 감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모두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섬김의 사랑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미얀마에 복음이 흘러가는 귀한 원동력이 되길 기도해 봅니다.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한국 미얀마 선교회'에서 다녀가셨습니다. 미얀마를 사랑하시는 몇몇 교회 목사님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한국 미얀마 선교회'를 조직하여 본격적으로 미얀마 선교를 돕기로 결정하고 미얀마 탐방을 오셨습니다. 선교사들의 사역지와 현지를 탐방하고, 앞으로 미얀마와 선교사들의 사역을 어떻게 돕고 연합할 것인지를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선교회의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3월 2일 미얀마 감리교 신학교(MTI)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올해 네명의 아이들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래래아웅, 조모아웅, 마닐라, 쏘플레이 이 네 아이들이 이제 교회의 현장에서 사역을 돕고, 목회를 배워가는 가운데 더 깊은 영성과 뜨거운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지길 바라며 자신의 종족을 넘어 열방으로의 복음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졸업식에 졸업생들과 성적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헌신해 주신 손길 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새로이 1개의 교회와 1개의 선교센터가 건축될 예정입니다. 용두동 교회 후원으로 미얀따공 지역에 세워지는 '미얀나마 교회'와 툄띠 지역에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땅 매입과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시간이 지체되었던 '툄띠'지역에도 모든 것이 잘 마무리 되어 기공예배를 드리고 건축을 시작하였고, 아직 건축허가 중에 있는 '미얀나마'교회도 곧 교회가 건축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특별히 툄띠 지역은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앞으로의 비전을 보고 선교센터로 시작하고 있는 만큼 방해하는 세력이 없이 모든 건축과정이 순조롭고 교회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Pray for Us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미얀마를 위해

미얀마는 지금 모든 것이 놀랍도록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일년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자동차, 건물, 사람들까지 모두가 어제의 모습을 벗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영적으로도 주께 돌아오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을 위해

올해 ‘미얀마 교회’와 ‘뚫띠센터’를 건축중에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미얀마 교회의 건축허가가 하루속히 응답되어 주의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뚫띠센터의 모든 건축과정 중에 방해하는 세력 없이 온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

한국의 이점을 위해

3월 27일자로 연회 참석과 진급시험을 위해 한국에 다녀올 계획입니다. 한 달여 시간 동안 진급과정과 선교보고와 미얀마를 알리는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깊은 영적 충전으로 무장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도우심을 위해

- 달라1센터(야자핀잔센터)에는 전기와 물이 없습니다. 데보라 사역자가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해가지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제법 아이들과 엄마들이 모이는 이곳 센터에 전기와 우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웅다곤센터(벤엘센터)는 센터 한쪽 벽의 시멘트 공사가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5월말 우기철이 다가오면 물을 먹은 벽돌들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기가 되기 전 이곳의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주소

NO34/BD24, Shwe Ong Bin housing, Yankin Township, Yangon, Myanmar H.P : +95-9-425289573
E-Mail : sarahkjm@hanmail.net / Sarahkjm70@gmail.com

김길명 선교사 후원회 “선물”

담당 : 조웅준 김사 (017-701-9141) cyjpd@nate.com

후원계좌 : 외환은행 620-208143-781 김길명

하나은행 608-910135-72707 김길명